



열일곱번째 이야기

우연이란 없다

- 2018 인도네시아 반둥/자카르타 아웃리치를 마치고 -

1. 준비에서 출발



아웃리치 안내가 있었는데 나는 ‘성경공부 과정 중의 하나이며, 반드시 가야한다’는 말로 받아들였다. 베트남은 일정이 맞지 않아 인도네시아에 마음을 두었다. 목적지가 오래 전 경험한 발리가 아닌 '바탐'이라고 한다. 일단 가보지 않은 곳이라 마음이 동했다. 떠나는 날짜의 시간만 조정된다면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아웃리치에 가야한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머리속에서 내내 내가 강의하고 있는 오전 수업을 마치고 떠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마침내 생각을 정리했다. 수업 중에 “반 선생님, 11일 출발 시간을 오후로 늦출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갈 수 있어요.”라는 한 문장이 입 밖으로 나왔다. 이 한 마디로 인해 반 학생들이 가겠다고 한 명, 두 명 합류하더니 드디어 반상섭 팀장님을 주축으로 박경아, 박길자, 박채영, 백소영, 손영님, 이정분 선생님, 조재관 그리고 유명숙 9명의 팀원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아웃리치 지역은 선교사님의 현지 사정에 의해 '반둥'으로 변경되었다.

본격적으로 아웃리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몇 주에 걸쳐 기도모임을 가졌고, 티켓을 예약하고 좌석을 정하고 드디어 7월 7일 마지막 기도모임과 파송식이 있었다. 파송식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모든 분들이 다가와 함께 기도를 해주었고 마음을 나눠주셨다. 까닭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다. 뜨거운 눈물의 의미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했다. 막연히 가졌던 설렘과 기대가 경건함을 동반한 두려움이 되어 가슴을 울렸다.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 아웃리치, 선교여행은 그간 솔하게 많은 대륙, 나라를 찾아 떠났던 익숙한 문학답사가 아니라는 것을... 패키지여행도, 자유여행도, 가족여행도 그리고 동문, 지인들이 떠나는 친교여행도 아니라는 것을...

선교라니, 어떻게, 무엇을, 어떤 것을... 도무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미션스쿨을 다녔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아직도 멀기만 한 신앙의 새내기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내 자신이 선교, 아웃리치라니... 갑자기 떠오르는 온갖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교물품과 팀원 각자에게 나누는 11kg의 BEE 교재의 무거움은 마음의 두려움이 되어 더욱 더 크게 자신을 압박했다.

2. 인도네시아 도착

7시간의 긴 비행시간을 지나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다. 현지 시간 10시 15분. 길고 긴 입국수속 행렬 중에 2018 아시아 안 게임을 위해 온 우리나라 배드민턴 팀을 만났다. 반가웠다. 조국을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더니 꼭 이런 마음이겠구나 생각했다. 모두 수속을 마치고 나오자 봉해남 선교사님이 손을 흔들어 맞아 주었다. 공항을 나와 대기한 차에 오르자 피곤이 온 몸에 몰려왔다. 이곳도 서울과 다르지 않게 교통체증이 그 늦은 시간임에도 심했다. 자카르타에서 반동까지 무려 4시간에 걸쳐 160km를 달려 은혜선교관에 도착했다. 현지시간 3시 30분, 제일 먼저 맨발로 우리를 반긴 사람은 숙소를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소년 '리베'였다.

3. 반동에서

12일 일정은 3시간을 자고, 아침 8시에 조찬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3시간은 고사하고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4시를 기점으로 이슬람교도들의 기도 소리가 밤의 고요를 깨웠다. 순간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 궁금했다. 우리처럼 자녀에 대해, 물질에 대해, 평안에 대해 기도할까 이런저런 무의미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12일 아침, 차는 경사진 언덕길을 달리다가 산비탈에 멎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좁은 골목을 따라 자바섬 서부, 4000만 명이 넘는 순다족이 거주하는 곳 중 한 장소로 발길을 서둘렀다.

찾아간 곳은 한인 선교사님 부부가 마음으로 다가가는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공부방이었다. 삼양마을 공부방은 5월 1일자로 일 년이 되었는데 학생들 모두가 무슬림이라고 한다.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소리조차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최고의 난제란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온다. 공부방 입구에는 ADONAI(오! 나의 주님) 현판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세 그룹의 아이들과 교류를 유도했다. 박채영 집사가 준비한 부채에 '사랑'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리고 다른 팀에게는 분철된 노트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쓰거나 그리고 싶은 내용의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들이 만든 결과물을 보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그 날의 장원을 뽑았다. 장원은 그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게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뽑아 릴레이로 오른 최종 우승자로 선정했다.

공부방에 온 다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히잡을 쓰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는 놀랍게도 대부분 모두 'I love ALLah'가 쓰여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봉해남, 강성자 선교사님 부부는 안타까워 하셨다.

공부방을 섬기시는 분은 '김 아브라함'이고 사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다.

좁디좁은 골목에 위치한 '삼양마을 공부방'의 선교의 시작은 장난감 바꾸기, 학용품 사주기, 성탄절이나 부활절 방문해서 선물 주기로 문을 열었다고 한다. 그 동안 노고가 얼마나 심했을까...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도 기독교인 것이 드러나면 아이들은 미련없이 다 떠나갔다고 한다. 김 선교사님의 이야기 속에서 떠나는 아이들을 보며 느꼈을 절망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온다.



3시, 반동 CL 세미나가 호텔 스티아브떼(Tetiabud)에서 있었다. 세미나실에서 기다리던 사람과 방문한 사람 모두가 서로 기쁨과 감사로 인사를 했다. 반 팀장님의 아주 명쾌하고 정확한 로마서 리뷰를 들으면서 우린 어느새 다시 로마서 시간으로 돌아가 있었다. 세미나 참석자의 태도는 공부방 아이들하고는 아주 달랐다. 진지했고 열정적이었다. 질문도 많고 답변도 아주 열심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다. 키 홀더 선물 포장지에 그들이 꼼꼼히 자필로 쓴 이름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따스하게 우리를 반기는지 알 수 있었다. 비록 이름의 스펠링은 좀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너무 감사했고, 미처 그들을 챙기지 못한 마음이 부끄러웠다.

세미나의 리더 라엘이 손수 키를 가지고 와서 19층 호텔 옥상에서 보여준 반동의 전경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 전경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로 올렸다.

13일, 반동 전체를 다 밟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그들의 상징인 모스크에 들어가 기도소를 발로 밟았다. 모스크 옥상 19층에 올라가서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주세요.’ 신앙 새내기로서 느끼는 마음이 남달랐다. 귀한 시간이었다.

14일, 반동에서 자카르타로 이동하였다. 은혜선교관을 지키던 두 소년이 작별인사를 하였다. 18살 마헤르, 21살 리베의 맑고 고운 미소는 그들이 고아라는 사실을 잊게 하였다. 반 팀장님이 리베와 허그를 하자 똥가 가슴에서 뭉클한 것이 올라왔다.

4. 자카르타에서

3시, 자카르타 GKKI 교회에서 전도론 세미나 참관과 반 팀장님의 로마서 개요 리뷰가 있는 후 복가시(우리나라 안양 정도의 거리)에 사는 이슬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RAHMAN의 집을 방문했다. 그의 집에서 ‘꿈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의 간증을 들었다. 그의 간증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15일, 자카르타 GKKI 교회의 주일예배는 상당한 충격이었다. 교회 안은 기쁨과 환희로 충만했다. 모두 밝았고 하나가 되어 수많은 찬양으로 예배했다. 10시에 시작한 예배는 12시가 되어 끝났다. GKKI 교회의 목사님은 여자분이셨다. 이곳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교회를 맡고, 아내도 없을 경우는 자녀가 맡는다고 한다. 참 특이했다.

예배가 끝난 뒤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남자에게는 전통의상 바틱을, 여자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알맞은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그들이 보여준 찬양과 예배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었다. 경건하고 조용한 예배만을 알았던 내게 그들의 예배는 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 오래 기억될 듯하다. 주일학교 사역에서 우리가 한 활동 또한 그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다. 박경아 자매가 표현하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아이들에게 활동을 유도했다.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과 목사님까지 ‘예수님 만나러 가기’에 동참했다.



5시, 마지막 방문지인 CGN-TV Indonesia의 ‘더 멀리 더 가까이’ 라는 방송 선교의 슬로건이 좋았다. 윤형준 국장님이 방송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선교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방송국은 작지만 알찼다. 모두 다 제집인 것처럼 편안해 했

다. 나 혼자 이방인, 타 교회 사람이라는 것이 절감되는 순간이었다. 그 마음은 늘 여행 마지막 날 느끼는 공허와 비슷했다.

5. 마무리하며

이제 생애 처음으로 한 아웃리치의 설렘과 기대는 놀람과 애잔함으로 바뀌었다. 그들을 통해 본 하나님은 내가 알고 느낀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았다. 그들은 내게 짙은 자성의 시간을 갖게 했다.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 무슬림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하는 자문은 깊은 아픔을 낳는다.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신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솔한 노력을 하나님은 정말 아실까? 왜, 지금도 나의 큰 아이, 아들에 대해 답을 안 주시는 것일까? 진정 이유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씨클링을 하며 도출해내는 스스로의 질문에 “하나님 아시지요?”라고 되묻는다. 질문이 가슴으로 와 스스로 조용히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으로 말을 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이 먼 곳 인도네시아 아웃리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하나님!!!'

9시, 자카르타 공항으로 가는 길 하늘에서 축복의 비가 잔잔히 내렸다. 팀원을 훌륭히 이끈 반상섭 팀장님과 모두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한 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취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한 모두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전한다. “진정 함께여서 고마웠다”고. (글쓴이: 유명숙)



글쓴이 유명숙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열정적인 교수님이다.

가족들과 함께 위례에 있는 '새가족 교회' 출석하고 있으며, 남편과 멋진 아들, 예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다녀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았다. 일 때문에 아이들을 보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웃에 있는 교회 사모님께서 아이들을 보살펴 주셔서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선뜻 가지는 못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엄마를 모셔오면 백달란트를 준다는 말에

아이를 위하여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30년이나 되었다. 20년 지인이며 신앙의 멘토인 이정분 집사님의 강권함으로 비 세미나를 신청했고, 세미나를 위해서 강의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새내기로서 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다.

BEE의 보석찾기



1. 김옥숙 집사

선교의 역사가 있고 100년된 교회가 있는 강화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대학교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과선배의 중보기도가 큰 역할을 했다) 이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성경공부 모임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온누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 또래 청년들과 청년부 활동을 정말 신나게, 열심히 하였다. 2004년 청년부 리더십을 대상으로 하는 온비아를 하면서 비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갈라디아서 세미나 중 연극을 하는 시간에 갈라디아인의 역할에 몰입하면서 열심히 가득했던 나의 믿음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특히 십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하고 있다. 질풍노도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의 새가족 안내를 섬기면서, 온비아 학생

들과 함께 BEE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토요 기도테이블에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비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비수'를 동역자들과 함께 만들면서 오늘도 답을 하고 있다.

[온누리 교회 집사, 강화도에서 십대를 보낸 섬집 아이, 직장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집사', BEE에서는 '자매' 혹은 '언니'로 불림, 홀로 계신 엄마, 1남 3녀 중 3째, 미혼임]

2. BEE의 보석을 찾아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과 섬김의 모습으로 '특별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자매가 우리 비식구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어요. 선교사님을 잘 섬기며, 집이 멀지만 토요일 이른 아침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어요. 누구일까요? 담주에 짠~~

BEE 소식

- 정말 무더웠던 여름! 모두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선풍기, 에어컨을 의지해 더위와 씨름을 하다보니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은혜의 결실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 2018년 가을학기부터 'BEE 오는 수요일'에 새로운 편집위원들이 합류하였습니다. 새 편집위원들은 9월 12일 수요일 2시 2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알차고 재미있는 웹진을 만들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 'BEE 오는 수요일'의 새로운 코너 '**BEE 보석찾기**'는 곳곳에 계신 비식구들을 찾아가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우리의 보석입니다'라는 인사로 찾아갈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웃으면서 인사해주시면 됩니다.
- 2018-2 온비아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자와 학생 모두에게 은혜와 성숙, 헌신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